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12/08~2025/12/14]

2025.12.15

[로봇] 씨메스 웨비나 요약

- 로봇 관절에 집중하는 한국. 삼성전자 모터 투자, 만도도 액츄에이터 고도화
- 중국 애지봇 5천대 출하 돌파. 유비텍은 추가 100억원 수주. 1X는 1만대 배치 추진
- 미국 로봇 수요 완전한 회복. 3분기 주문 전년비 17% 증가. 非 자동차가 주도

[방산] 추웠던 연말이 지나간다

- 페루 전차와 에스토니아, 그리고 노르웨이의 천무 계약 가시권 진입. 중동도 중국 대비 우위
- 수주에 사활 거는 한화. 미국에 장악 공장 건설, 루마니아 IFV는 80% 현지화 제안
- 라인메탈이 KNDS 독일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

[항공] 티웨이의 자본 확충

- 님코노미 노선인 광 노선 수요 부진 속, 공정위의 시정명령 변경 심사 돌입
- 티웨이항공의 대규모 자본 확충. 올해만 4천억원. LCC 적자가 모회사 발목
- 또 경영권 분쟁 이슈에 한진칼의 주가 급등. 한진칼은 지배력 유지위해 산은 EB 전액 상환

[조선] 한화의 오스탈 지분 확대 승인

- 미국의 NDAA 2026에서 확인한 美 함정 해외 건조의 높은 장벽
- TKMS, 노르웨이 잠수함 추가 수주 가능성. 독일 해군 조선소도 인수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
- 오랜 기간 표류한 KDDX 사업 공동 설계로 추진될 가능성 높아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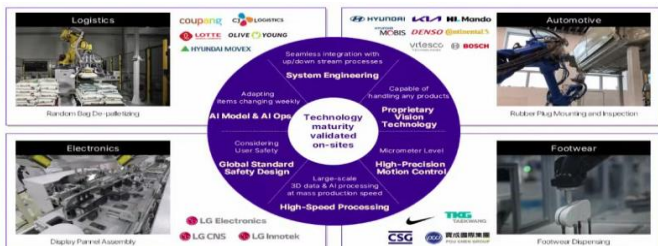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7)

[씨메스 웨비나 요약]

- 12월 9일 씨메스는 '자동화의 미래'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동 웨비나에서 소개된 씨메스의 경쟁력 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정리.
- 씨메스는 기존에 로봇이 못 풀지 못하던 비정형 작업을 해결하는 E2E AI 로봇틱스 솔루션을 내재화한 회사. 코어 기술은 3D 비전(인지)·AI(판단 및 계획)·로봇 제어(모션 수행 & 경로 계획) 3가지 축.
- 향후 로드맵은 물류 분야에서 팔레타이징/디팔레타이징 SKU를 늘리고 멀티툴로 확장할 계획. 픽앤 플레이스는 AMR 결합·투명 물체 전용 기술로 확장하며, 제조는 로딩/언로딩→디버링·용접 양산→조립(어셈블리)로 확대하는 방향. 미래 방향은 현장 데이터·도메인 지식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해 인지·판단·E2E·액션까지 확장하고, 엔드이펙터 내재화와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반 제품화를 추진하는 전략. 참고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물류·제조에서 POC를 진행했고, 내년 상반기 양산 수준 POC를 목표. 로봇 HW 자체는 만들지 않고,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파트너 로봇을 선별 적용.

Key Chart: 씨메스의 영역



자료: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씨메스 웨비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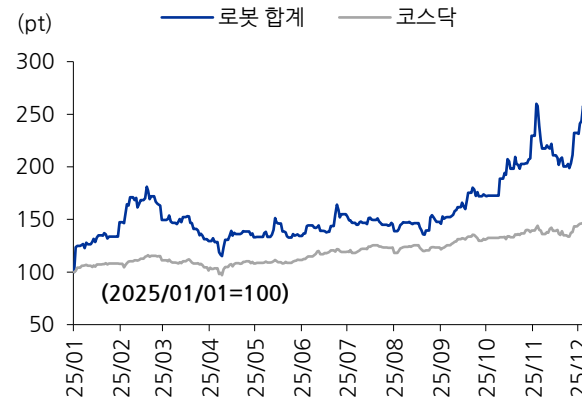
씨메스가 12월 9일 자동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 씨메스의 핵심 기술과 향후 로드맵에 대해 설명. 물류 솔루션 중심의 기업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휴머노이드 분야까지 확대 추진.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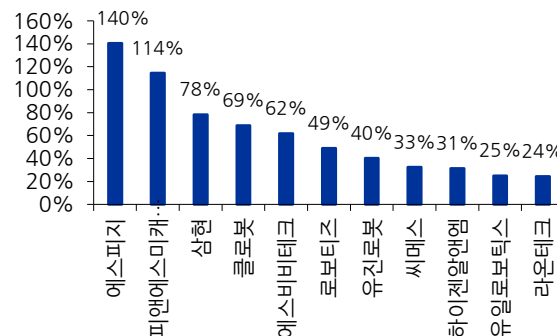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2/08~12/14)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삼성 AI로봇 '볼리' 6년째 출시 미뤄져
- 유진로봇, 35억원 규모 생산라인 설비 계약
- '자율주행 로봇' 뉴빌리티, 251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

[휴머노이드]

- 내년 휴머노이드 5만 대 이상 출하. 올해 대비 700%↑
- 티엑스알, 투모로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로봇 고도화 협력

[부품/SW/기타]

- 삼성전기, 노르웨이 '알바'에 지분 투자. 모터 기술 확보
- 로보티즈, 우즈벡 기관과 로봇 제조 공장 건설 협력
- HL만도 '휴머노이드 관절' 정조준. 35년 매출 2.3조 달성
- 뉴로메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국산화 추진
- SBB테크, 15억원 규모 TSMC형 웨이퍼공정 베어링 공급
- 에이딘로보틱스 IPO 추진. 2027년 특례 상장 목표

[Global]

- 1X "가정용 로봇 네오 1만대 산업현장 투입"
- 스킬드 AI 몸값 140억달러로. 소뱅·엔비디아 '재베팅'
- 테라다인, 2026년 미시간에 로봇 허브 개설
- 북미 로봇 주문, 3Q 17% 급증. 非자동차 산업 59% 차지
- 메르카도리브레, 어질리티와 휴머노이드 상용 배치 협력
- 유니트리, 휴머노이드용 앱스토어 공개
- 中 유비텍, 휴머노이드 100억원 또 수주. AI 기업 납품
- 中 딥로보틱스, 1,000억원 투자 유치. 통신사 등 참여
- 중국 엔진시, 2000억원 투자 유치 성공
- 테슬라도 제쳤다. 中 애지봇 누적 생산 5,000대 돌파



Weekly Keyword

추웠던 연말이 지나간다

방산의 주가는 지정학 리스크와, 실적, 수주에 영향. 연말 세가지 요소가 모두 부진했던 가운데, 반등의 기회가 보이고 있음. 연말이 지나가면서 수주 모멘텀도 재차 부각될 것으로 기대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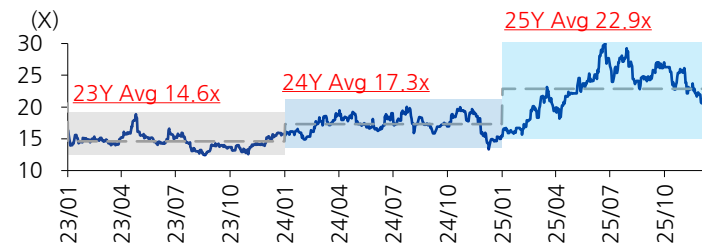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5)

[연말이 지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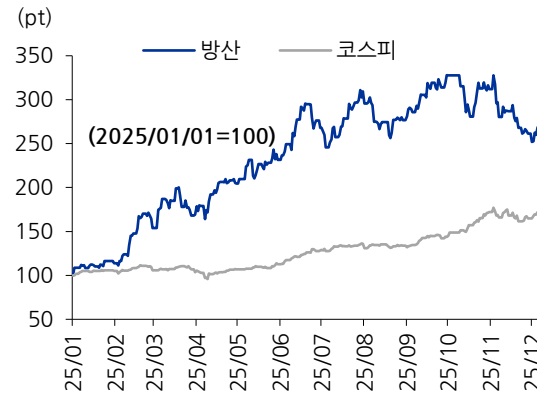
- 방산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로 판단. (1) 지정학 리스크, (2) 실적, (3) 수주. 11월 이후 부진했던 이유는 상기 세가지 포인트가 모두 방산 업종에 있어 부정적이었기 때문. 미국의 러-우 휴전 노력 속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고, 실적 레벨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기저를 높여오면서 부담이 커지고, 연말에는 해외 상대국의 휴가 시즌 돌입에 따라 추가 수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방산의センチ먼트를 끌어내려왔음.
- 하지만, 러-우 휴전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음. 최근 발표된 미국의 NSS에서 고립주의 노선을 재확인하며 각개도생의 시대임을 재확인함. 그리고 국내 방산 실적이 집중되는 4분기 계절성에 더해 고환율 흐름 지속되면서 실적 기대감 유효하고, 연말이 지나가면서 재차 다수 수주 파이프라인(한화에어로: 스페인 K-9, 에스토니아 천무, 노르웨이 천무, 사우디 MNG, 현대로템: 페루 K-2/K808 등)이 업데이트되면서 반등을 노리는 중. 방산 업종에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은 늘 유효했음.

Key Chart: 방산 12MF PER 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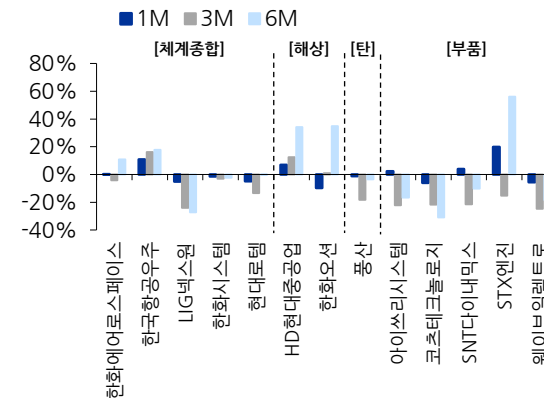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12/08~12/14)

[수주/계약]

-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 한화에어로, 이달 중순 '천무' 에스토니아 수출 계약
- LIG넥스원, '천궁III' 개발 착수. 2,166억 규모 시제 계약
- 1.9조 전자전기, LIG로 사실상 마무리. "KAI, 이외제기 없어"
- 보잉, 해군과 신형 해상초계기 4조원 공급 협의
- 삼양컴텍, 해병대에 상륙장갑차 장갑 납품

[기업별 이슈]

- 한화, 방산업체 최초 연구-마케팅용 자체 무기체계 보유
- 한화, 1.5조원 투자해 美 본토 155mm 포탄공장 건설
-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에 IFV 80% 현지화 제안
- 한화 "이집트, 'K9 자주포' 중동-아프리카 생산허브 육성"
- 미국 방산시장 노리는 LIG. 올해 로비자금 '24만달러' 투입
- KF-21, 내년 3월 사천서 양산 1호기 출고식
- 李대통령 "정부기관이 사기당해". 다원시스 납품지연 도마

[기타]

- 한중, 중동 방산시장서 각축. "상호운용성 韓우위"
- 한-UAE 국방, 고위군사총회 개최. "방산 공동개발-수출협력"
- 우주청장 "2029년 달 궤도선-2032년 착륙선 보낸다"

[글로벌]

- 美 2026 국방수권법, 한미일 '방산 공급망 통합' 첫 법제화
-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5조원 검토. 미사일-드론 확보
- 보잉 'MQ-28', 유인기와 첫 편대 공중전 성공
- 러 "돈바스 전체는 러시아 것. 우크라 철수해야 휴전"
- 라인메탈, KNDS 독일 사업부 인수 추진



Weekly Keyword

티웨이의 자본 확충

티웨이항공이 1,91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실시. 적자가 계속되면서, 3분기 2천억원에 이어 추가 조달. 현재 시급한 문제는 장거리 노선의 수익성. 리브랜딩 이후 개선 방향 주목.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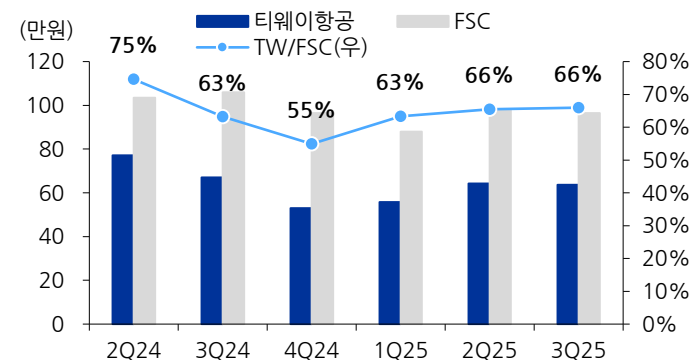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5)

[티웨이의 자본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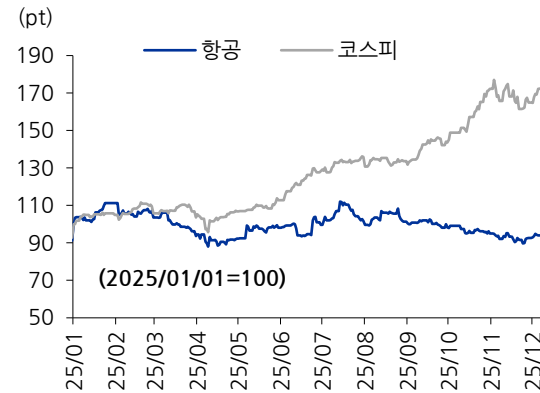
- 티웨이항공이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섬. 1,000억원의 제 3자배정(소노인 터내셔널) 유상증자 및 910억원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총 1,910억원을 조달. 이미 3분기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실시했으나, 적자가 계속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자본 확충에 나서는 것.
- 티웨이항공은 대형기 투자, 구주 등 장거리 노선 공략 등 벽에 부딪힌 LCC의 성장을 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음. 그러나, 아직 장거리 노선 운영 측면에서는 수익성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 26년도 트리니티항공으로의 리브랜딩 이후 장거리 노선 수익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 구주 노선은 고환율/고유가/러-우 전쟁으로 인해 늘어난 운항거리로 수익성 확보의 난이도가 높음. 현재 구주 노선에서는 FSC 대비 60~70% 수준의 운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Key Chart: 구주 노선 평균 운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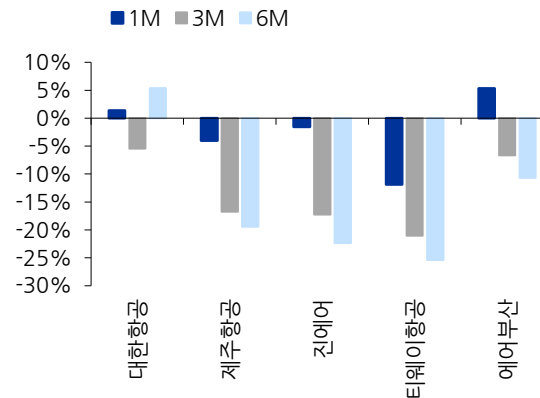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2/08~12/14)

[여객/화물]

- 에어프레미아, 내년 4월부터 美 워싱턴D.C. 노선 신규 취항
- 영국으로 가는 새 하늘길. 버진 애틀랜틱, 3월 29일 취항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델타 테크옵스와 737맥스 LEAP 엔진 MRO 계약
- 아시아나 탃는데 의자가 대한항공? 브랜드 통합 속도
- 아시아나, '이코노미 스마트' 빼고 '엑스트라 리그'로
- 진에어 "2027년 1분기 통합 항공사 출범 추진"
- 제주항공, 직위 체계 7년 만에 부활. "역할책임 명확히"
- 티웨이 1,910억원 자본 확충. 소노 1천억원 유증 참여
- 티웨이, 인천공항 T1 라운지 운영 검토. 고급화 전략 강화
- 아시아나 탈퇴에도 티웨이,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안해
- 에어로케이항공,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 파라타, 취항 두 달만에 운항 차질. 하루 6편 무더기 결항
- 에어제타, 아시아나화물 인수 효과로 물동량 4배 급증

[기타]

- 공정위, '괘 노선 수요 급감' 대한항공 시정명령 변경 심사
- 국토부 "대한항공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 진입 지원"
- 적자 LCC 구하려다. 위닉스 등 모회사까지 자본잠식 위기
- 한진칼, 산은 EB 3천억 상환. 지배력 유지·독립성 보장 목적

[글로벌]

- 日, 출국세 3배 인상안 본격화 "내년 개정안 포함 검토"
- 보잉, 11월 항공기 인도 44대로 17% 감소
- 印, '운항 취소 대란' 자국 항공사에 10% 운항 감축 명령
- 2026년 글로벌 SAF 생산량 26% 증가에 그치며 둔화



Weekly Keyword

한화의 오스탈 지분 확대 승인

호주가 한화의 오스탈 지분을 19.9%까지 늘리도록 허용. 정보 접근 및 이사회 선임 등 각종 제한이 있을 전망이나, 본질인 미국 사업 시너지 창출에 주목해볼 필요. 미국은 국내 건조를 우선 중.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5)

[한화의 오스탈 지분 확대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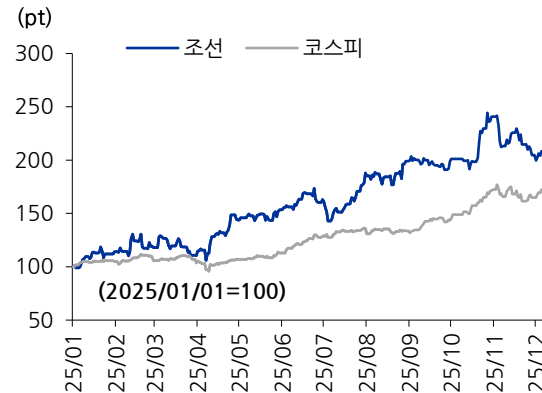
- 호주가 한화그룹의 오스탈 지분을 19.9%까지 확보하는 것을 승인(現 9.9%). 오스탈은 AUKUS 프로젝트와 호주의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의 핵심 플레이어로, 호주와 일본측에서 한화의 인수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어온 바 있음. 금번 승인 이후에도 한화의 민감한 정보 접근 및 오스탈 이사회 선임에도 제한이 가해질 것이란 보도.
- 한화의 오스탈 투자 목적은 미국 함정 사업 역량 강화로 판단. 호주/일본의 견제보다는 필리핀소와 연계한 미국 사업 협력 구조 구축에 주목. 국내 조선소에게는 한국 건조가 수익성 관점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국내 건조가 우선시될 수 밖에 없음.
- 美 NDAA 2026에서 내년 예산으로 국외 건조 가능한 군함을 2척으로 규정. 이마저도 미사일 계측 안전선으로 제한. 그 외 NDAA는 SEC 917에서 외국 조선사의 미국 자회사 설립/투자 가능성을, SEC 1016에서 "비핵(Non-nuclear) 보조합정을 외국과 공동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미국의 부족한 조선 역량을 해외와 협력할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지만, 기본 방향성은 미국 건조임을 재확인.

Key Chart: 한화의 오스탈 투자 타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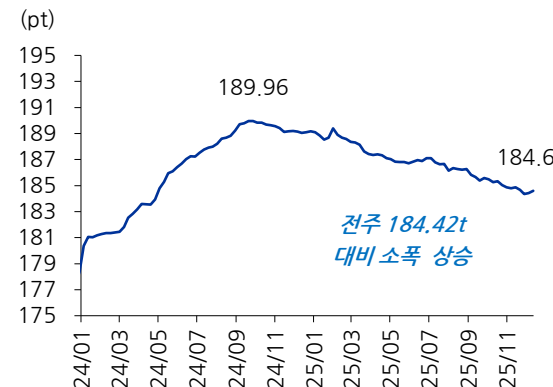
일정	비고
24년	4월 인수 제안, 9월 인수 중단
25년 3월	한화, 오스탈 지분 9.9% 취득 및 TRS 9.9% 확보
25년 6월	미국 CFIUS, 오스탈 지분 100% 보유 가능 승인
25년 8월	호주 정부 제 3자 오스탈 지분 20% 이상 확보 제동
25년 12월	호주 정부, 오스탈 지분 19.9% 확보 허용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2/08~12/14)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3,542억원 규모 VLAC 2척 수주
- HD현대, NYK와 최대 8척 LNG 운반선 LOI 체결
- 에디슨, 크누트센과 손잡고 한화오션에 LNGC 1척 발주
- 한화, 고난도 특수선 WTIV 2척 조기 인도에 100억 보너스
- 한화오션, 연말 수주 노르웨이발 LNG선 4척 계약 초읽기
- KIND, 7조 규모 美 루이지애나 FLNG 사업 참여한다

[특수선]

- 방사청, 공정위에 KDDX 공동설계 담합 여부 유권해석
- 해군, 3,000t 잠수함에 캐나다 승조원 태우고 훈련
- HJ중공업, MSRA라이선스 내년 초 체결 전망
- HJ중공업, 해군 신형고속정 4척 통합진수식 열어

[기타]

- 호주 정부, 한화그룹 오스탈 지분 19.9% 인수 승인
- HD현대, 인도 타밀나두에 조선소 건설 추진. '2.9조 투자'
- HD현대중, '수소 100% 힘센 엔진' 이르면 2027년 출시
- HD현대, 인도 차세대 항만 크레인 제작

[글로벌]

- NDAA 2026, "해외 건조 시험선 2척 이내, MRO 예외 확대"
- 美,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속도전'. 오커스 핵은 '급제동'
- 노르웨이, TKMS 잠수함 추가 발주 절차 착수
- 일감 밀려드는 TKMS, 독일 해군 조선소 인수 추진